

# 家事勞動의 經濟的 價値評價에 관한 研究

Estimates of the Economic Value of Household Work by Fulltime Home  
Makers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김 선 희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Seon Hee Kim

## 目 次

I. 序 論	IV. 結果 및 分析
II. 理論의 背景 및 先行研究	V. 結論 및 論議
III. 研究方法	參考文獻

## <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household work done by fulltime home makers, using alternative methods of valuation household work in Pusan Korea.

Eight findings, five different methods -Self Estimation by Home Makers, Reservation Wage, Opportunity Cost, Individual function Cost, Replacement Cost,(Visiting Housekeeper, Housekeeper, General Management, Housekeeper & General Management) - are tried for the estimation of economic value of household work.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follows :

1) The economic value of household work varies substantially by the methods of estimating. The averages are :

2) The economic value of household work varies with the level of education, ages, the number of children, the stage of FLC in all method of estimation, and the level of income in self estimation by home makers, Reservation wage.

Specially, FLC revealed good explanation variable in method of estimating as input-household work time.

3) The gap between two-day survey and three-day survey in household work time questionnaire did'nt so much.

## \*Estimates of economic value of household work by each method of estimation

(unit; won)

	Daily	Monthly
(1) Self Estimation by Home Makers	12,629	378,860
(2) Reservation Wage	11,441	343,219
(3) Opportunity Cost	13,918	417,545
(4) Individual Function Cost	11,523	345,678
(5) Replacement Cost		
Visiting Housekeeper	7,945	238,356
Housekeeper	11,312	339,358
General Management	24,546	736,375
Housekeeper & General Management	15,653	469,583

## I. 序 論

## 1. 研究目的 및 研究內容

家事勞動은 가족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家庭內에서 수행하는 모든 노동을 의미하며, 근본적으로는 가정의 대를 잇고 자녀를 양육·교육하고 사회화하며, 勞動力을 再生産하는 노동이며, 나아가 家族의 生活文化를 형성하고 전승하는 것으로서 人間의 福祉와 幸福을 위해 공헌하는 가장 根本的인 勞動이다. 따라서 家事勞動은 사회임금노동을 가능케 하는 前提勞動이며,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賃金勞動과 그에 따른 부와 번영, 잉여가치도 창출되지 않는다.

주부가 투자하는 가사노동의 총 시간은 한 사회의 생산노동의 총 시간과 맞먹으며, 이렇게 人間과 社會福祉에 투여된 여성의 勞動時間은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sup>1)</sup> 노동부의 1988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산업평균 남자근로

시간은 월 224시간이며, 여자근로시간은 228.4시간으로 나타났다(p. 20).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정주부(전업주부)의 월 평균가사노동시간은 246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經濟活動參加率이 88년에는 45%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서 74.6%가 家事勞動과 社會勞動의 二重勞動을 부담하고 있는 기혼여성으로서 그 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전업주부들은 하루 평균 8.2 시간의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남성의 사회노동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社會的·經濟的 기여도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女性勞動에 대한 低評價 현상은 社會勞動뿐만 아니라 家事勞動에서도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즉, 社會勞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근로시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수준에서는 1988년 현재 남자의 49.8%에 머무는 등 성별임금 격차는 아직도 클뿐만 아니라 家事勞動은 勞動一般과 마찬가지로 舍目的的 有用勞動이란 측면과 生理學的 의미에서 人間勞動力의 支出이라는 二重性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부들이 가족을 위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고 그에 합당한 가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부의 가사노동은 화폐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의 부재와 家事勞動價値에 대한 客觀的 情報의 결여는 가사노동에 대한 認識的 측면에서의 評價節下와 더불어 實際的 측면에서의 評價節下, 즉 불

1) 노동부의 1988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산업평균 남자근로시간은 월 224시간이며, 여자근로시간은 228.4시간으로 나타났다.(P.20)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가정주부(전업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46시간이었다.

의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출이나 家事勞動의 歸屬價値 處理에 따른 財産上의 問題(상속, 증여, 재산분할청구 등)에서도 객관적인 평가자료의 부재로 그 가치가 더욱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家事勞動의 價値評價와 관련된 연구경향을 보면, 외국의 경우는 70년대 부터 실제적인 家値評價가 활발히 進行되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후반 부터 가사노동시간에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고, 80년대에 들어서는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의 증가와 더불어 家事勞動의 價値와 重要性 및 經濟的 價値評價의 必要性과 評價方法에 관한 연구가 행해졌으며 이들과 관련한 외국연구의 소개 등이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실제적인 經濟的 價値評價에 대한 연구(김애실: 1985, 최명숙: 1987, 정영금: 1989)가 발표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이때까지 'shadow work', 'invisible work'로서 經濟的 價値를 生産하지 않으며, 그 댓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家事勞動에 대한 再評價와 함께 家事勞動의 生産성과 그 價値에 대한 客觀的 評價作業이 시작된 것이다.

국내외에서 행해진 家事勞動의 價値評價는 대부분이 主婦의 家事勞動時間을 측정하고, 이것에 市場價格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評價價値의 根本的인 差異는 家事勞動時間의 量的·質的差異에 의한 것이며, 評價方法 및 賃金構造 등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동일노동에 대한 시장가격의 性差別的 構造의인 문제는 일단 論外로 하더라도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가사노동가치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가사노동시간의 量的·質的差異는 그 사회의 文化水準, 社會構造, 地域特性 및 階層 등 여러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사노동가치평가의 투입요소인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누적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적정가치평가 방법의 접근과 理論的 體系化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가사노동가치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評價方法別로 산출해봄으로써 가사노동의 귀속가치와 관련한 실천적인 문제의 적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

며, 評價方法別·主婦의 特性別 評價의 差異에 대한 比較分析을 통해 평가목적에 따라 적합한 評價方法을 모색하고, 나아가 家事勞動價値의 評價方法에 대한 理論的 토대를 抽出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알아 보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부의 가사노동가치평가의 중요한 투입요소인 家事勞動時間은 領域別·主婦의 特性別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2. 가사노동가치평가의 研究方法上 論議되어야 할 한 문제인 1일 平均家事勞動時間의 算出方式을 比較·檢討한다.
3.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는 評價方法別, 主婦의 特性別로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分析한다.

## II. 理論的 背景 및 先行研究

家事勞動의 經濟的 價値에 관한 연구는 주로 經濟學, 家庭管理學, 社會學, 女性學 등 네 학문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家事勞動의 經濟的 價値평가와 관련하여 論議되고 있는 것은 크게 네 방향으로서, 첫째는 家事勞動과 勞動力 商品 및 資本과의 관계, 또는 勞動一般과의 관계를 토대로 한 家事勞動의 經濟的 價値 論議과 家事勞動의 生産성에 관한 理論的인 論議이며, 둘째는 일단 가사노동의 生産性 또는 經濟的 價値를 인정 한 후, 화폐화하여 GNP총계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經濟指標를 만들과 동시에 전체주부의 국가에 대한 총기여를 파악하려는 흐름이다. 셋째는 전통적인 消費者行動理論에 時間概念을 도입하여 生産活動을 위한 勞動力 供給의 次元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넷째는, 微視的 接近으로서 여러가지 評價方法을 적용하여 산출된 家事勞動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個別主婦의 家計生産의 量을 파악함과 아울러 家事勞動의 歸屬價値와 관련한 실제적인 여러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획득을 위한 연구와 한편으로는 評價方法別·個別主婦의 屬性別 評價의 差異에 관한 分析을 통해 家事勞動 價値評價의 理論的 基礎를 형성하려는 흐름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이 어느 정도의 價値로 評價될 수 있는지 각 評價方法을 적용하여 評價함으로써 가사노동의 歸屬價値와 관련된 실천적인 문제의 적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평가방법별, 변인별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價値評價 方法論의 이론적 토대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評價方法別 先行研究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機會費用方法

기회비용법은 주부가 家事勞動에 종사하는 대신 취업한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소득(potential income)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람이 家事勞動時間에 시간을 配分할 때, 시간당 가사노동의 限界價値를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賃金率과 같은 점에서 결정한다는 理論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가정에서의 하루 일의 가치는 시장노동에서의 하루의 가치와 동일하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는 주부의 市場賃金率에 家事勞動時間을 곱하여 계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主婦의 特性에 따른 同一 家事勞動에 대한 價値評價의 差異와 경제여건, 고용기회 등으로 인해 선택에 제한이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N.Ferber & C.Greene (1983)는 주부로 하여금 가정에 머물게하거나 혹은 취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을 가사노동의 機會費用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주부의 시장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機會費用은 전체주부의 가사노동가치를 평가하기 보다는 개별주부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主作業場을 결정하거나 再就業時期를 결정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문숙재, 채옥희, 1986).

먼저 市場賃金率에 家事勞動時間을 곱하여 評價한 연구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W.Nordhous & J.Tobin은 1972년 기존의 GNP를 대신하는 福祉指標로서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라는 개념을 발표하였다. MEW의 개념은 기존의 GNP 개념에다 소비자 내구재에서 발생하는 서

어비스, 여가, 시장외의 노동(Nonmarket work)의 귀속가치 등 전체복지를 증가시키는 요소를 더하고, 복지를 감소시키는 요소 즉 경제성장으로 도시화, 교통혼잡, 소음, 환경오염 등이 가져오는 불쾌(disamenities)를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외의 노동(Nonmarket work)은 가사노동을 의미하며 주부, 취업자, 실업자, 학생 및 기타 등의 가사시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W.Nordhous & Tobin은 만 14세 이상의 인구를 위의 5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가사노동시간에 다른 기회비용(취업자: 제조업 평균임금, 실업자: 零, 가사종사자·학생·기타: 性別 제조업 남성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가사노동의 총가치를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였다.

M. Weinrobe(1974)는 근로자평균임금을 기회비용으로 적용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산출하였고, J. Adler & O. Hawrylyshyn(1978)은 근로자 평균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기회비용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M.Murphy(1982)는 평가방법별로 가사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市場費用法과 機會費用法을 사용하였으며 평균임금, 세금을 공제한 평균임금·세금과 노동관련비용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각각 적용하여 가사노동의 기회비용가치를 산출하였다. Schettkat(1985)는 독일의 가계생산의 크기와 그것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산업체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한 기회비용법으로 산출하였다.

김애실(1985)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측정에 있어 주부의 주관적 평가, 기회비용, 전문직업인대체비용, 총합적 대체비용으로서 가정부 대체와 가정부·가정관리자 2인대체 등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중에서 기회비용은 주부가 취할 의사 있는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집에 있는것'의 화폐가치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월 평균 371,094원(표준편차 148,222원)으로 나타났으며, 기회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력, 소득수준, 자녀수, 6세미만 자녀수 등으로서 네 변수 모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나타냈다.

최명숙(1987)의 연구에서는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해 주관적 평가, 기회비용

방법, 전문가대체법, 종합적 대체법으로서 파출부 대체 등 4방법으로 가치추정을 하였다. 여기서 기회비용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같은 연령, 같은 학력의 여성근로자 평균임금을 적용시켜 산출한 결과 397,864원으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 학령전 자녀수, 소득 등이 정의 방향으로 기회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금(1989)의 연구에서는 기회비용산출에서 가사노동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한 결과 529,941원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변수로는 가족수, 주부와 남편의 연령, FLC, 결혼기간, 교육수준, 소득 및 자산변수 등이 正의 영향을 나타냈고, 학령전 자녀유무, 남편직업, 고용인유무, 주택형태 등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2. 專門職業人 代替費用法

전문직업인 대체비용법은 가사노동을 각 작업영역으로 분류하고 영역별 시간을 측정한 후, 각 영역에 해당하는 대체 전문직업인의 시장임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가사노동의 영역분류와 대체직업선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종합적 대체비용에 비해 훨씬 복잡하나 주부역할의 다양성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는 유리하다. 또한 단순노동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과소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과소평가 현상은 그 나라의 산업구조에 따라 서서비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보다 서서비스 임금이 낮은 저개발국에서는 특히 과소평가될 소지가 더 크다.

전문직업인 대체비용법으로 家事勞動의 價値를 평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K.Walker & W.Gauger(1976)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를 위해 가족구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을 조사하였다. 즉 30종류의 다른 가족을 설정하고 각각 50세대씩 총 1,500가족에 대해 2일 조사법으로서, 10분 눈금표로 작성된 시간조사표를 사용하여 가사노동시간을 인터뷰하였으며, 각 가사영역에 대해 전문직업인 임금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주부의 취업유무, 자녀수, 막내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자녀가 2명인 핵가족의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월 약 467달러로 평

가되었다.

J.W.Kendrick(1979)은 미국의 GNP 제정에서 제외된 가사노동의 귀속가치는 1929년 GNP의 26.2%, 1948년의 28.4%, 1966년의 23.9%, 1973년의 24.4%를 차지한다고 추정하였다. F.T.Hall & Schroeder(1970)는 사망자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한 자녀를 둔 32세 주부의 사망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가사노동시간에 대체직업인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시켜 그 주부의 가사노동기여액을 산출하였으며 이것을 보상액의 산출근거로 삼았다.

M.Murph(1978)는 가계생산이 GNP에 공헌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업인대체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고, 그 결과에서 주부의 기여도는 GNP의 약 20%로 추정하였다.<sup>14)</sup>

김애실(1985)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9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해당 대체전문직업인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시킨 결과 월 평균 271,933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6세미만의 자녀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최명숙(1987)은 가사노동을 11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해당 영역별 대체전문직업인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시킨 결과 월 평균 250,799원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연령, 가족수, 자녀수, 학령전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위의 김애실의 연구에서는 6세미만의 자녀수가 많을수록 전문직업인 대체비용이 높았으나 최명숙의 연구에서는 반대로 6세미만의 자녀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정영금(1989)은 가사노동을 10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다시 비신체적 가족 돌보기와 경영영역을 세분화하였고, 여기에 해당 대체직업의 남녀전체평균임금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538,438원이었으며 가족수, 자녀수, 세대, 주부와 남편의 연령, 막내의 연령, FLC, 결혼지속연수, 학령전자녀유무, 주부의 취업경험여부 등이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3. 總合的 代替費用法

종합적 대체비용은 주부의 노동가치를 그와 동일한 서서비스를 행하는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

과 같다고 보고, 가사노동에 필적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직업종사자의 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GNP에 대한 주부의 기여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평가방법은 특정대체직의 선택에 따른 過小·過大評價의 문제가 있으므로 대체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E.D.Lindal, S.Kuznets 등은 가정부를 주부대체직으로 적용하였다.

김애실은 가정부 1명대체의 경우 월 평균 170,669원으로 나타났고, 가정부, 가정관리자 2명대체의 경우는 월 평균 393,222원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연령과 6세미만의 자녀수에 따라 평가치가 달랐다. 또한 2인대체의 경우는 가정부 1명이나, 8~9명의 직업인을 고용하는 경우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최명숙의 연구에서는 파출부를 대체직업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결과 월 평균 182,813원으로 나타나 이 방법으로 계산된 가사노동의 가치는 실제가치보다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보았고, 영향변수로는 가족수, 학령전 자녀수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정영금 역시 파출부를 대체직으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결과인 시간당 1,257원을 적용시켜 산출한 결과 420,469원으로 나타났고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대, 가족수, 자녀수, 주부와 남편의 연령, 막내연령, FLC, 결혼기간, 학령전자녀유무, 총소득, 동산, 고용인유무, 조력자유무 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主觀的評價費用法

가사노동의 經濟的 價値에 대한 주부들의 評價意識을 알아보기 위해 주부 스스로 자신의 가사노동을 어느 정도로 評價하고 있는지를 묻고, 그 응답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김애실의 연구에서는 월 평균 461,207원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평가비용이 높았다. 최명숙의 연구에서는 월 평균 298,380원으로서 학력, 소득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연구에서 김애실의 것이 월 등히 높게 평가된 것은 조사대상주부의 지역적 차이와 더불어, 김애실의 경우 조사대상의 학력분포가 높

게(중졸이하 14명, 고졸 20명, 대졸 32명)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성희, 이기영(1989)의 「가사노동가치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평가비교 연구」에서 나타난 내용중,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해, 화폐수입자로서의 기여에 대한 평가를 환산해본다면 남편은 약 27만원으로 응답하였고, 부인은 약 278,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금(1989)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502,391원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수, 자녀수, 주부와 남편의 연령, 막내연령, FLC, 결혼기간, 주부와 남편의 교육수준, 자산변수, 고용인 유무 등이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 Ⅲ. 研究方法

#### 1. 評價方法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家事勞動에 대한 經濟的 價値를 주부의 응답에 기초한 主觀的 評價 및 要求資金方法과 주부의 家事勞動時間을 算出資料로 投入한 機會費用法 專門職業人 代替法·總合的 代替法 등을 적용한 客觀的 評價方法에 의해 다음과 같이 評價하였다.

##### 1) 主觀的 評價方法

주관적 평가는 주부 스스로 자신의 家事勞動에 대해 어느 정도의 價値評價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본 것이다. 즉 “귀하의 주부역할을 화폐로 환산한다면 월 얼마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 2) 要求資金方法

要求資金은 주부로 하여금 가사노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보았다. 즉, “만약에 귀하에게 취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소한 월급이 얼마정도가 되면 일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 3) 機會費用方法

주부의 월평균(30일) 가사노동시간에 같은 연령, 학력수준의 여성근로자의 平均資金을 機會費用으로 적용시켜 산출하였다. 여성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월급액에다 연간특별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더하여 적용시켰다. (월평균임금 = 월급액 + 연간특

별급여액 / 12)

4) 專門職業人 代替法

가사노동을 專門職業人에게 맡길 경우 드는 費用을 산출한 것으로서, 家事勞動을 10개의 領域으로 나누고 各 領域別 時間을 산출한 다음, 各 領域에 해당하는 專門職業人의 시간당 平均임금을 적용시켜 합계하였다.

$$\sum_{i=1}^{10} (T_i \times W_i)$$

T<sub>i</sub>: 작업 i에 투입한 월평균 가사 노동시간

W<sub>i</sub>: 작업 i에 ε당하는 시장임금을

$$= (\text{월급여액} + \text{연간특별급여액} / 12) \div \text{월 근로시간}$$

5) 總合的 代替法

주부의 家事勞動을 파출부, 가정부, 총괄관리자 등에게 모두 맡길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家事勞動의 特性에 따라 2大別하여 가정부와 총괄관리자 2인에게 맡길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 4가지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산출방식은 주부의 家事勞動時間에 각각의 시간당 임금을 곱하였다. 가정부·관리자 2人 代替의 경우, 취사, 설거지, 세탁, 재봉 및 수선, 청소, 주택관리 영역은 가정부 임금을 적용하였고, 가족의 신체적·비신체적 관리, 시장보기, 가정경영영역은 총괄관리자 임금을 적용하였다.(시간당 임금=(월급여액+연간특별급여액/12)÷월 근로시간)

a)  $T \times W_p$

$W_g$

$W_m$

b)  $\sum_{i=1}^6 (T \times W_g) + \sum_{i=7}^{10} (T \times W_m)$

T: 월평균가사노동시간

W<sub>p</sub>: 파출부의 시간당임금

W<sub>g</sub>: 가정부의 시간당임금

W<sub>m</sub>: 총괄관리자의 시간당임금

i=1~6: 취사, 설거지, 세탁, 재봉, 수선, 청소, 주택 관리

i=7~10: 가족의 신체적관리, 가족의 비신체적

관리, 시장보기, 가정경영

2. 評價資料 및 道具

본 연구의 評價資料는 家事勞動의 價値評價에 대한 主婦의 主觀的 응답과 調査하여 산출된 主婦의 家事勞動時間이다.

評價資料를 얻기 위한 調査道具는 人口學的, 社會經濟的 要因을 파악하기 위해 家事勞動時間 및 評價와 관련있는 先行研究를 토대로 주부의 연령, 학력, 자녀수, 직업, 주성장지, 취업경험, 사회노동시간, 가계소득 및 가족주기 등의 문항을 선택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家事勞動 價値評價 문항으로는 주부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主觀的인 經濟的 價値評價 문항과 '집에 머무는 가치' 혹은 '취업에 대한 최저 기대보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客觀的 價値評價 資料인 家事勞動時間을 산출하기 위해 KBS의 「國民生活時間」 調査表 및 伊藤 등의 「生活時間 調査表」를 참고로 하여 수정·작성한 「가사노동시간표」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것으로서 5분 눈금표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주로 하는 일, 동시에 하는 일, 도와주는 사람 및 도와주는 일" 등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道具는 80명의 家庭主婦를 대상으로 1차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한 후 완성하였다.

3. 標集對象 및 節次

본 연구의 標集對象은 1988년 11월 현재 釜山市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家事勞動의 주담당자로 활동하고 있는 主婦이다.

본 연구에서는 家族週期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기 위해 막내자녀의 연령과 교육과정을 단계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標集時 이를 고려하였다. 즉 釜山市內에 소재하는 각각 2개의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가능한 막내에게 배포되도록 하여, 그 어머니가 직접기입하거나 직접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훈련된 조사원이 인터뷰하여 기록하였다.

질문지 배부시 기록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家事勞動時間表의 기록에 주의하도록 하였다.

調査期間은 1988년 11월 18일(금), 19일(토), 20일(일)과 25일(금), 26일(토), 27일(일) 중에서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家事勞動時間表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회수율은 82.6%였으나 기재가 부실한 것을 제외한 700부 중에서 全業家庭主婦의 523부가 본 연구의 分析資料로 사용되었다.

#### 4. 資料處理

家事勞動時間表는 요일별로 各 領域別 時間을 기록하였고, 2가지 일을 동시에 한 경우는 '주요한 일'에다 1차적으로 集計를 하고, '함께 한 일'이 '주요한 일'보다 시간이 많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을 集計하였다. 여기서 응답자가 기입한 내용을 위와 같

이 분류하는 基準은 보다 집중적인 정신력과 노동력이 요구되는 일을 '주요한 일'로 하였다.

收集된 資料는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特性은 빈도,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主婦의 各 領域別 家事勞動時間은 平均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評價方法別, 變因別 價値評價는 領域別 혹은 1일 平均 家事勞動時間에다 各 評價方法別 산출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그 유의도는 F검증하였다.

모든 資料의 處理는 SPSS 및 SPSSX Package를 이용하였다.

### IV. 研究結果 및 分析

#### 1. 調査對象者의 一般的 特性

조사대상 주부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백분율(빈도)	변인	구분	백분율(빈도)
연령	20-29	8.4(48)	가족주기	신혼기	3.1(18)
	30-39	23.6(135)		미취학아동기	17.7(101)
	40-49	46.0(263)		국민학교기	30.2(173)
	50 이상	22.0(126)		중학교기	22.2(127)
학력	국족이하	8.6(49)		고등학교기	17.7(101)
	중졸	23.3(133)	대학및 취업기	9.1(52)	
	고졸	44.9(257)	남편직업	무직	4.3(25)
	대졸이상	10.7(61)		생산판매서비스	32.2(184)
무응답	12.6(72)	사무·기술직		37.1(212)	
자녀수	없음	3.3(19)	전문관리직	25.5(146)	
	1	7.7(44)	무응답	0.9(5)	
	2	34.6(198)	가족형태	핵가족	76.9(440)
	3	29.2(167)		시가동거가족	16.4(94)
	4이상	25.2(144)		친정동거가족	1.2(7)
가계소득	40만 이하	9.9(57)	무응답	5.4(31)	
	41-70	36.2(207)	가정고용인여부	고용안함	93.4(534)
	71-100	26.4(151)		파출부고용	4.7(27)
	101-150	18.5(106)		가정부고용	0.5(3)
	150 이상	7.3(42)	무응답	1.4(8)	
주택형태	단독주택	53.2(304)	합계 100 (572)		
	아파트·연립	46.4(265)			
	기타	0.5(3)			

주) 시가동거가족: 시부모를 포함한 시가식구 동거가족

친정동거가족: 친정부모를 포함한 친정식구 동거가족



2.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표 2〉 가정주부의 요일별 · 영역별

영역	가사노동시간 (단위 : 분)		
	요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취 사		152.2	148.3 141.5
설 것이		75.6	75.3 71.3
세 탁		67.7	57.7 51.9
재 봉 · 수 선		10.1	8.0 5.2
청 소		56.4	53.9 48.0
주 택 관 리		22.1	22.5 21.6
가 족 의 신 체 적 관 리		32.4	29.2 16.1
가 족 의 비 신 체 적 관 리		21.1	18.7 12.7
시 장 보 기		46.8	44.0 32.1
가 정 경 영		7.5	5.5 3.2
전 체 가 사 노 동 시 간 (시간)		491.9 (8.2)	464.0 (7.73) 403.6 (6.73)

家事勞動의 價値評價에 있어서 주부의 主觀的 評價費用과 要求資金費用은 주부의 家事勞動時間이 직접적인 評價資料로 적용되지 않지만 주부의 전체평균 가사노동시간에 시장임금을 적용하는 機會費用과 영역별 가사노동시간에 해당 대체직업인의 임금을 적용하는 專門職業人 代替費用, 그리고 주부의 전체평균 가사노동시간에 대체직업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는 總合的 代替費用 등의 評價方法에는 주부의 家事勞動時間이 직접적인 중요한 評價資料가 된다.

따라서 各 領域別 家事勞動時間과 全體家事勞動時間의 分析은 家事勞動의 價値評價에서 先行해야 할 重要課題이므로 이를 먼저 살펴보고, 가정주부의 변인별 가사노동시간을 分析한다. 또한 先行研究에서 편의상 적용하고 있는 평일, 일요일 이틀간의 시간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 산출 방식과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分析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家庭主婦의 家事領域別 家事勞動時間

家事勞動의 分類는 價値評價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면서 중요한 作業이다. 그 分類基準은 가사노동의 목적, 발생방식, 담당자, 필요도, 에너지소비량 그리고 가사노동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가능한 상세한 것이 그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다양성이 풍부한 분류가 필요하다(김 선희, 1989).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사노동시간 관련연구들을 참고하여 취사, 설 것이, 세탁, 재봉 및 수선, 청소, 주택관리, 가족의 신체적 관리, 비신체적 관리, 시장보기, 가정경영 등 10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가정주부의 요일에 따른 家事領域別 家事勞動時間은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전체평균가사노동시간은 평일 8.2시간, 토요일 7.73시간, 일요일 6.73시간으로 평일이 가장 길게 나타났고, 영역별로는 취사시간이 요일별로 각각 2시간 32분, 2시간 28분, 2시간 22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요일에 관계없이 설 것이, 세

탁, 청소, 시장보기, 가족의 신체적 관리, 주택관리, 가족의 비신체적 관리, 재봉 및 수선, 가정경영의 공통의 순서로 나타났다.

2) 家庭主婦의 變因別 家事勞動時間

가정주부의 요일에 따른 變因別 평균가사노동시간과 평·토·일요일의 3일간의 조사자료를 적용하여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 산출방식으로 산출한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을 變因別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위에서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을 보면,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은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으로(P<0.001) 20대 주부는 50대 이상 주부보다 약 2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기 단계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 미취학 아동기에 가장 많은 가사노동시간이 요구되며 자녀가 국민학교기, 중학교기를 거치면서 점차 감소하다 고등학교기에 다시 증가했으며 자녀의 대학교육 및 취업기에는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게 소요되었다(P<0.001). 자녀수는 자녀가 없을 때와 1명일 때가 100분 이상의 큰 차이가 났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적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1명씩 증가하는데 따른 시간차는 점차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03분, -32분, -25분, -13분). 이것은 자녀가 많아질수록 성장한 자녀에게 요구되는 시간의 감소와 더불어 성장한 자녀가 가사노동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나타

〈표 3〉 가정주부의 변인별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 (단위:분)

변인	요일	평 일	토요일	일요일	평 균
연 령					
20대		588.0***	557.6***	473.2***	566.6***
30대		533.9	492.8	437.9	515.0
40대		468.4	447.3	378.9	452.9
50대 이상		457.6	431.0	393.4	446.2
학 령					
국졸 이하		473.6*	448.8	399.8	457.3*
중졸		462.9	446.8	391.4	450.3
고졸		512.6	482.4	419.6	495.5
대졸 이상		519.3	462.9	387.6	494.2
자녀 수					
없음		431.6*	426.3	357.9**	421.1*
1 명		539.3	522.2	472.5	524.8
2 명		509.5	467.0	413.6	492.3
3 명		482.9	461.0	391.9	466.6
4명 이상		468.1	448.9	387.5	453.6
가계소득					
40만원 이하		474.4	474.0	420.4*	467.1
41-70만원		493.2	463.7	418.3	477.0
71-100만원		503.7	476.5	407.0	487.2
101-150만원		490.1	457.8	381.0	471.7
150만원 이상		477.0	427.6	361.9	455.1
가족주기					
신혼기		451.8***	435.3***	354.7***	436.6***
미취학아동기		632.6	573.5	486.0	604.5
국민학교기		482.8	473.9	419.7	472.8
중학교기		449.8	425.5	362.4	435.0
고등학교기		460.7	425.7	379.9	445.3
대학및 취업기		448.6	419.2	375.1	434.9
전체평균 (시간)		491.9 (8.2)	464.0 (7.73)	403.6 (6.73)	475.3 (7.92)

\*P<0.05 \*\*P<0.01 \*\*\*P<0.001

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주부의 학력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중졸이하 집단보다 고졸이상 집단이 약 40여분 더 많게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일요일에만 5% 수준에서 유의적이었고,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에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 가사노동시간의 집단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주부의 연령, 가족주기, 자녀수, 학

력 등이며 이 중에서 종합적인 가정생활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가족주기는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3)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의 산출방식

선행연구에서 편의상 평일과 일요일 이틀간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과 3일간(평·토·일요일)의 조사자료를 통하여 산출된 것과의 차이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산출방식을 모색하는 것은 家事勞動의 價値評價의 研究方法上 한 중요한 문제이다.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의 산출방식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조사 중 평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의 生活時間을 유일하게 조사한 KBS의 81년, 83년, 85년, 87년의 「國民生活時間調査」<sup>2)</sup> 資料 中 우리나라 家庭主婦의 家事勞動時間과 本 研究의 調査資料를 두가지 방법으로 산출하여 비교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우리나라 가정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 (단위:분)

연도	시간 요일	가사노동시간			1일평균가사노동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A	B	A-B
81년*		409	391	340	397	394	3
83년		396	361	330	382	382	0
85년		375	361	301	362	359	3
87년		375	350	270	358	354	4
88년**		492	464	404	475	473	2

\* 자료: 한국방송공사, 「국민생활시간」, 1982, 1984, 1986, 1988.

\*\* 자료: 본 연구의 조사자료

A :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평일 가사노동시간×5+토요일+일요일의 가사노동시간) / 7

B :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평일 가사노동시간×5.5+일요일 가사노동시간×1.5) / 7

2) 한국방송공사에서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에 위촉하여 전국규모로 실시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시간에 관한 조사로서, 평일·토요일·일요일의 생활활동을 시간대 및 시간량에 따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 방송프로그램 편성과 社會科學的 學問的 研究 및 諸般 政策 樹立의 基礎資料를 제공하기 위해 1981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일련의 자료중 「時間量別 集計表」에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分

위의 결과에서 A방식은 B방식보다 전체적으로 약 3~4분 정도 더 많게 나타나 월평균 약 90분~120분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이것을 家事勞動의 價値評價에 적용시킨다면 모든 評價方法 중에서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은 60세 이상 중졸이하의 여성근로자 평균임금을 적용하면) 월최저 1,146원~월최고 10,555원(60세 이상 대졸여성근로자 임금)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차이를 본다면 B방식은 조사시간, 노력, 금전 등의 費用面에서 더 유리하나 A방식보다 약간 낮게 평가되는 短點을 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家事勞動時間 研究가 다른 연구에 비해 資料 收集, 集計, 分類 등 여러면에서 노력과 비용이 크게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틀간의 조사를 토대로 산출하는 B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 3. 家事勞動의 經濟的 價値評價 및 分析

가정주부의 家事勞動價値에 대한 主觀的 評價와 家事勞動時間 및 評價方法別 해당 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家事勞動의 客觀的 評價價値<sup>3)</sup> 評價方法別·變因別로 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난 평가방법별·변인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최저 198,597원에서 최고 871,965원으로써 그 평가방법과 主婦의 特性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주부의 연령, 학력, 자녀수, 가계소득, 가족주기 등 변인에 따른 차이를 評價方法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主婦의 主觀的 評價費用

주부 스스로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變因別 최저평균 306,250원에서 최고평균 491,026원이었고 전체평균은 378,860원으로 나타

났다. 주부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88년 한국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 236,031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 학력, 자녀수, 가계소득, 가족주기의 5변인에 다른 주부의 주관적 평가의 차이는 모두 유의적이었다. 즉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가 높고( $P<0.001$ ), 학력이 높을수록( $P<0.01$ ) 자녀수가 많을수록( $P<0.05$ ) 높게 평가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08,468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이상, 20대, 30대 순이었다. 가족주기에서는 막내가 중학교기까지는 점차 증가하다 고등학교기 이후 다시 낮아졌다.

#### 2) 要求賃金費用

要求賃金費用은 주부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최소한의 임금과 같다고 보고, 이것은 “가정에 머무는 가치”를 나타낸다. 이 방법은 근로자의 平均賃金を 機會費用으로 적용할 경우 同一勞動의 機會費用이 주부의 특성(학력, 전문기술습득여부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Hawrylshyn, Ferber & Greene 등이 적용한 “가정에 머무는 가치”, “가정에 머물게 하는 혹은 취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을 가사노동의 機會費用으로 적용한 것이다.

즉, “만약 당신에게 취업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소한 월급이 얼마일 때 일할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변인별 최저평균 265,600원, 최고평균 479,737원으로 나타났고 전체평균은 343,219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要求賃金이 주부의 主觀的 評價보다 35,640원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부가 자신의 노동력을 현실노동시장을 고려하여 評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要求賃金費用에 미치는 변인별 영향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p<0.001$ ). 즉 중졸이하 주부는 약 30만원 정도면 일할 의사가 있는데 비해 고졸은 34만원, 대졸은 42만원 이상이어야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가정 주부는 약 30만원 이상되면 일할의사가 있는데 비해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주부는 적어도 49만원 이상이어야 취업할 의사가 있었다. 연령별로도 40대까지

析資料로 사용하였음.

(참조: 김선희, “도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와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1호, 1987, P.116)

3) 客觀的 評價方法을 적용한 경우 노동관련비용이 제외되지 않았음.

〈표 5〉 평가방법별 · 변인별 가사노동의 가치

(단위: 원)

평가방법 변인	주관적 평가비 용	요구임 금비용	기회비 용	전문직업인 대체비용	총합적 대체비용			
					과출부대체	가정부대체	총괄관리자대체	관리자+가정부대체
연 령								
20대	354,255 <sup>***</sup>	287,234 <sup>**</sup>	508,215 <sup>**</sup>	473,918 <sup>***</sup>	283,337 <sup>***</sup>	474,721 <sup>***</sup>	875,336 <sup>***</sup>	611,783 <sup>***</sup>
30대	335,246	326,378	469,638	393,903	257,532	431,486	795,615	521,853
40대	408,468	360,040	381,485	314,356	226,519	379,525	699,804	433,447
50대 이상	375,833	350,894	397,090	309,884	223,143	398,575	734,931	468,435
학 령								
국졸이하	308,140 <sup>**</sup>	301,778 <sup>***</sup>	222,515 <sup>***</sup>	316,534 <sup>**</sup>	228,696 <sup>*</sup>	383,172 <sup>*</sup>	706,530 <sup>*</sup>	437,270 <sup>**</sup>
중 졸	358,871	306,721	221,057	307,912	225,172	377,268	695,644	425,812
고 졸	391,736	343,208	411,321	367,385	247,815	415,205	765,595	494,681
대졸이상	392,373	423,667	997,729	388,349	247,164	414,115	763,585	512,392
자녀수								
없음	311,111	294,444 <sup>*</sup>	398,897 <sup>*</sup>	292,195 <sup>***</sup>	210,568 <sup>*</sup>	352,800 <sup>*</sup>	650,526 <sup>*</sup>	401,295 <sup>***</sup>
1 명	374,390	294,048	477,717	426,850	262,452	439,730	810,816	556,569
2 명	360,053	333,651	468,571	366,472	246,188	412,479	760,568	492,415
3 명	384,211	347,673	380,269	322,995	233,361	390,989	720,942	447,276
4명이상	412,774	374,718	363,279	323,994	226,858	380,093	700,852	439,903
가계소득								
40만이하	306,250 <sup>***</sup>	265,600 <sup>***</sup>	367,862	339,454	233,620	391,422	721,742	460,607
41-70만원	346,923	297,861	372,524	349,994	238,546	399,675	736,959	471,723
71-100만원	395,139	360,946	476,638	353,131	243,644	408,217	752,709	480,629
101-150만원	413,000	392,353	421,980	339,889	235,917	395,270	728,836	461,001
150만원이상	491,026	479,737	473,158	329,108	227,586	381,312	703,100	448,689
가족주기								
신혼기	311,111 <sup>*</sup>	313,889 <sup>**</sup>	432,214 <sup>***</sup>	303,647 <sup>***</sup>	218,357 <sup>***</sup>	365,850 <sup>***</sup>	674,589 <sup>***</sup>	414,857 <sup>***</sup>
미취학아동기	365,625	314,100	628,129	510,059	302,322	506,531	933,989	653,804
국민학교기	376,418	338,780	410,570	339,672	236,453	396,169	730,494	461,412
중학교기	421,074	391,393	377,288	296,155	217,568	364,527	672,150	411,567
고등학교기	374,211	319,794	310,184	305,627	222,687	373,104	687,964	425,100
대학및 취업기	352,083	363,469	390,218	293,781	217,494	364,404	671,924	413,100
전체평균	378,860	343,219	417,545	345,678	238,356	399,358	736,375	469,583

주: \*P&lt;0.05 \*\*P&lt;0.01 \*\*\*P&lt;0.001

는 계속 증가하다가 50대에 이르러서는 약간 낮아졌다(P<.01). 자녀수가 많을수록 要求賃金이 높았으며(P<.05) 가족주기별로는 중학교기까지는 단계의 진전에 따라 要求賃金이 높아졌으나 고등학교기에 현저히 낮았으며 다시 대학 및 취업기는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학력, 수입, 자녀수등의 변인에 따른 변화경향은 김 애실의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 3) 機會費用

기회비용은 개별주부의 연령, 학력에 해당하는 여

성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에다 주부의 월평균(30일) 가사노동시간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개별 주부의 연령, 학력수준에 해당하는 1988년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산출결과 기회비용은 변인별 최저평균 221,057원, 최고평균 997,729원이었고 전체평균은 417,545원으로 나타났다.

기회비용이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학력, 가족주기는 0.1% 수준에서 유의적이었

〈표 6〉 연령별 · 학력별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 (단위: 원 / 월)

학력\연령	중졸이하	고 졸	대졸이상
20-24	249,721	265,405	397,169
25-29	250,154	328,302	499,860
30-34	236,698	381,101	706,599
35-39	237,855	368,972	883,743
40-44	237,208	383,498	945,608
45-49	236,958	359,763	1,086,204
50-54	233,267	387,878	1,132,122
55-59	216,009	334,748	1,121,599
60이상	189,709	454,708	1,274,618
평균	231,953	362,708	794,551

\* 자료 :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1988.

고, 연령은 1%, 자녀수는 5%수준에서 각각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은 유의적이지 못하였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학력의 경우는 〈표 6〉에서 나타나는 기회비용 산출의 구조적 특성인 심한 학력간 임금차이에 우선 기인한 것으로서 이것은 연령이 증가될수록 더욱 증폭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표 3〉에서 고졸과 대졸간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졸이 고졸보다 기회비용이 두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표 5〉에서 국졸이하가 중졸보다 1,458원 더 높게 나타난 것은 〈표 3〉에서 국졸이하가 중졸보다 가사노동시간이 평균 7분 더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자료에서 국졸이하의 임금이 누락되어 있어서 편의상 중졸임금을 적용시켰기 때문이다.

가족주기단계에 따른 기회비용의 차이를 보면, 자녀양육 등 가장 많은 가사노동을 요구하는 미취학아동기 주부가 628,129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혼기, 대학 및 취업기, 국민학교기, 중학교기, 고등학교기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녀가 없는 신혼기와 대학 및 취업기를 제외하면 막내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기회비용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혼기주부의 기회비용이 미취학아동기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국민학교기, 고등학교기 주부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평균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 기회비용은 20대 주부가 508,215원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30대, 50대 이상, 40대의 순서로 나타나 50대 이상의 경우를 제외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기회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사노동시간의 차이와 더불어 기회비용산출의 구조적 특성인 연령과 학력의 상호작용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녀수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자녀가 1명일 때가 477,717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4명 이상일 때가 363,279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기회비용이 낮게 나타났다.

#### 4) 專門職業人 代替費用

전문직업인 대체비용산출은 가사노동을 10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대체직업을 선택한 후, 각 領域別 家事勞動時間에 해당 代替職業의 時間當 賃金を 곱하였다. 家事勞動 領域과 代替職業 및 時間當 賃金은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재봉 및 수선의 대체직업 선정에 있어서 산업별 직종분류 중 현재 가장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는 의복제조공 · 양복공, 양복공 · 양장공, 재봉공 · 자수공 등이 있으나 산업현장에서의 이들 업무 내용은 단순기능적이며 재봉면에 치우친 감이 있으므로 실제로 주부들이 가정에서 하는 수선부분이 문제로 남게 되어 이것을 세탁공에다 적용시켰다. 현재 세탁소에서는 대부분이 세탁업무와 수선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 의복수선소에서는 주업무인 수선과 함께 재봉도 하고 있

〈표 7〉 가사노동영역별 대체직업 및 시간당 임금 (단위: 원)

가사노동영역	대체직업	시간당 임금
1. 취사	조리사	1,221
2. 식사후처리	가정부	1,676
3. 세탁 및 옷정리	세탁공	1,303
4. 재봉 및 수선	세탁공*	1,303
5. 청소	건물관리원및 청소원	933
6. 주택관리및 수선	건물관리원및 청소원	933
7. 가족의 신체적관리	학령전 교원	2,549
8. 가족의 비신체적관리	초등교육교원	2,920
9. 시상보기	경리원및 출납원	1,383
10. 가정경영	총괄관리자	3,090

어 이를 적용시키는 것이 적합하지만 직종별 임금분류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편의상 세탁공의 임금을 적용시켰다. 또한 가족의 신체적 관리와 비신체적 관리는 조사결과 대부분의 시간이 자녀돌보기와 자녀 학습돌보기로 나타났고, 약간의 성인가족 시중들이 있었지만 그 평균시간이 매우 적었으므로 가족의 신체적 관리에는 학령전 교원의 임금을 적용시켰고 비신체적 관리에는 초등교육교원의 임금을 적용시켰다. 또한 가정경영은 관리자(4,355원/시간)와 총괄관리자(3,090원/시간) 중 총괄관리자를 대체직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專門職業人代替費用의 변인에 따른 차이를 <표 5>에서 보면 변인별 최저평균 292,195원, 최고평균 510,059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은 345,678원이었다. 각 변인의 집단별 차이는 연령, 학력, 자녀수, 가족주기 4변인 모두 높은 유의수준( $P < 0.001$ )을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없을 때는 292,195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표 3>의 가사노동시간과 관련시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가사요구로 인해 가사노동시간 자체가 길게 나타난 사실과 그 노동의 내용이 대체직업의 임금율이 높은 가족의 신체적, 비신체적 관리가 많다는 점이 위와 같은 경향을 초래하는 주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가계소득에 따른 전문직업인 대체비용의 차는 유의적이지 못하였고 이것은 최명숙, 김애실의 연구와 같은 경향이였다. 전문가대체비용에 있어서 김애실의 연구와 최명숙의 연구에서는 학력, 소득수준이 함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력이 0.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김애실의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66명이며, 표본의 학력분포(중졸이하 14명, 고졸 20명, 대졸 32명)에 따른 영역별 가사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전문가 대체비용의 차이는 각 영역별시간에 해당 대체직업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시킨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영역별 가사노동시간 및 그 시간당 임금율의 차이가 결정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 5) 綜合的 代替費用

총합적 대체비용은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적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할만한 직업의 임금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주부의 노동가치는 그와 동일한 서어비스를 수행하는 임금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그 대체직업으로서 파출부, 가정부, 총괄관리자를 선택하여 각각의 평가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대체직업 선택에 관해 추론해 보고자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파출부, 가정부, 총괄관리자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는 방법과 둘째, 주부의 가사노동 중 취사, 설거지, 세탁, 재봉 및 수선, 청소, 주택관리 등 단순노동영역에는 가정부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고 가족의 신체적·비신체적 관리, 시장보기, 가정경영 시간에는 총괄관리자의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것은 주부역할을 모두 특정 대체직업(파출부, 가정부, 총괄관리자)에 맡김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주부노동에 대한 과소평가나 과대평가의 결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여러명의 전문 직업인에게 각 영역별로 대체시키는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보았다.

대체직업별 綜合的 代替費用을 <표 5>에서 살펴보면, 변인별 파출부, 가정부, 총괄관리자 대체비용은 최저평균이 각각 210,568원, 352,800원, 650,526원으로 나타났고, 최고평균은 각각 302,322원, 506,531원, 933,989원이었으며 전체평균은 238,356원, 399,358원, 736,375원으로 나타남으로써 대체직업별 평가의 차이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각 대체직업內에서의 가사노동가치의 차이는 주부의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차에 기인한다. 각 변인별 평가비용이 차이를 보면, 연령과 가족주기에 다른 차이가 가장 뚜렷하였고( $P < 0.001$ ) 학력과 자녀수는 5%수준에서 유의적이었으며 가계소득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가 적을수록 평가비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주기단계별로는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긴 미취학아동기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국민학교기, 고등학교기, 신혼기, 중학교기, 대학및 취업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사노동을 가정부와 총괄관리자 2인에

게 대체시켰을 경우, 변인별 최저평균은 401,295원, 최고평균 653,804원, 전체평균 469,583원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비용의 차이는 연령, 자녀수, 가족주기단계는 0.1% 수준에서 유의적이었고, 학력은 1% 수준에서 유의적이었으며,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주기단계별로는 미취학 아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민학교기, 고등학교기, 신혼기, 대학및 취업기, 중학교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4가지 총합적 대체비용의 차이를 보면 파출부 대체비용은 238,356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총괄관리자 대체비용은 736,375원으로서 대체직업 선정에 따른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가사노동평가에서 총합적대체법을 적용하는 경우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파출부나 가정부로 대체하는 경우는 주부의 관리적 측면과 가족관리상의 정서적·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게되어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총괄관리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가사노동을 구성하는 단순노동부분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주관적 평가비용과 요구임금비용은 주부의 응답에 의거하여 직접산출된 것이며 기회비용과 전문직업인 대체비용, 각 총합적 대체비용 등은 주부의 영역별 가사노동시간 및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에 해당 임금율은 평가자료로 하여 각 산출방식에 따라 평가된 것이다.

다음으로 평가방법별 가사노동의 가치에 미치는 각 변인의 영향을 보면 첫째, 연령은 주관적 평가, 전문직업인 대체비용, 4가지의 총합적 대체비용 모두에서 0.1%의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내었고, 요구임금비용 및 기회비용에서는 1% 수준에서 유의적이었으므로 매우 유용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주기는 기회비용과 전문직업인 대체비용, 4가지의 총합적 대체비용에서 모두 0.1%의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냈으며 요구임금비용에서는 1%, 주관적 평가에서는 5% 수준에서 각각 유의적이었다. 셋째, 학력은

요구임금 및 기회비용에서는 0.1% 수준에서, 주관적 평가와 전문직업인 대체비용, 관리자·가정부 2인 대체비용에서는 1% 수준에서 각각 유의적이었으며 나머지 세 총합적 대체비용에서는 5% 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넷째, 자녀수는 자녀를 돌보는 시간(가족의 신체적, 비신체적 관리)의 차이로 가사영역별 대체직업 중 비교적 고임금의 적용이 실현되는 전문직업인 대체비용과 관리자·가정부 2인 대체비용에서는 0.1%의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모두에서는 5% 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은 주관적 평가와 요구임금에서만 0.1%의 높은 유의수준을 나타냈으나 나머지 모든 평가에서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結論 및 論議

본 연구는 家庭主婦의 家事勞動에 대한 經濟的 價値를 산출하기 위해 8가지의 評價方法을 적용하였다. 또한 각 評價方法別·變因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評價目的別 적합한 評價方法과 評價時 고려해야 할 主婦의 特性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家事勞動의 歸屬價値處理와 관련된 실천적인 문제의 적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家事勞動評價 方法論의 理論的 토대를 抽出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家事勞動 價値의 評價資料로 投入되는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 산출에 있어서 2일 調査法을 적용하는 경우 3일 調査法보다 월 최소 1,146원에서부터 월 최고 10,555원 정도 더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短点이 있기는 하지만 家事勞動時間 調査의 여러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2일 調査法을 적용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업주부들의 월평균 가사노동가치를 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결과 주관적평가에 의한 가치는 278,860원, 요구임금비용에 의한 가치는 343,219원, 기회비용은 417,545원, 전문직업인 대체비용에 의한 가치는 345,678원, 총합적 대체비용산출의 경우 파출부, 가정부, 총괄관리자를 대체적으로 선정한 경우는 각각 238,356원, 399,358원, 736,375원으로 나타났으

며, 총괄관리자와 가정부 2인에게 대체시켰을 경우는 469,583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주부의 요구임금이 주관적 평가비용에 비해 3만5천원 정도 낮게, 기회비용보다 약 7만5천원 이상 낮게 나타난 것은 현실시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노동력을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것은 전문직업인 대체비용과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평가비용이 가정부 대체비용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응답대상 주부의 학력(중졸이하 41.9%, 고졸 44.9%, 대졸 이상 10.7%)과 가계소득(70만원 이하 46.1%)의 영향때문으로 보인다. 이것은 85년의 김에실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학력이 매우 높게 편포되어 있었고(대졸 48.3%) 그 결과 방가방법 중 461,207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조사시기가 비슷한 서울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한 89년 정영금의 연구에서(대졸 38%)도 502,391원으로서 본 연구와 약 12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응답대상자의 학력분포의 차에 가장 크게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력, 연령, 가계소득, 자녀수, 가족주기 등 5變因에 다른 각 평가방법별 비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부의 연령과 가족주기가 가장 뚜렷한 영향을 보이는 변인이고, 다음으로 학력, 자녀수였으며 가계소득은 주부의 주관적인 응답에 기초해 산출된 主觀的 評價費用과 要求資金에서만 유의적이었고 다른 評價方法에는 유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가족주기는 막내자녀에 기준을 둔것으로서 가족생활의 전반을 총체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시간을 평가의 투입요소로 하는 평가방법에서는 매우 유용한 변인으로 보인다.

이상의 結論과 더불어 몇가지 論議 및 提案點을 보면,

첫째, 評價方法上의 問題로서 機會費用法의 경우 그 산출과정상 低學歷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이 낮고, 高學歷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산정되는 점은 특히 여성에게 적용되는 '性減價現象'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 문제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專門家代替法의 경우 各 家事領域別 해당 代替職業을 적합하게 적용시키기 위해 현행 우리나라의 '직업분류 및 직종별 임

금'이 더욱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評價方法에서 선정된 5變因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부의 主觀的 응답에 기초한 評價(주관적 평가 및 요구임금비용)에서는 가계소득이 가장 유효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家事勞動時間을 투입하여 산출한 客觀的 評價(6가지)에서는 家族週期가 가장 유의적인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의 研究에서는 主要變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자녀수 變因은 주부의 주관적 응답에 기초한 두 評價에서는 正의 영향을 나타냈으나 家事勞動時間이 투입되는 客觀的 評價(6가지)에서는 負의 영향을 나타내어 자녀가 많을수록 낮게 評價되었다.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자녀수의 영향은 김 에실연구와 같은 경향이었으나 보다 정확한 영향분석을 위해서는 자녀의 가사조력 시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1일 평균가사노동시간 산출에 있어서는 2일 調査法과 3일 調査法 적용에 대한 長短點과 그 差異가 밝혀졌으므로 앞으로 家事勞動時間調査의 효율적 方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검토와 연구가 진전되어 方法論에 관한 활발한 論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本 研究는 標集對象이 釜山市의 家庭主婦로 提限되어 있으나, 앞으로 全國規模의 연구와 함께 地域에 따른 評價도 필요하다고 보며 무엇보다 職業主婦의 家事勞動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家事勞動의 價値評價에 대한 理論的, 方法論的 研究와 더불어 家事勞動의 歸屬價値와 관련한 主婦의 財産相屬, 贈與, 財産分割請求, 傷害·報償 등 현실적인 문제의 적용에 필요한 家事勞動의 累積的인 歸屬價値 評價方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적용하지 못한 分析的 方法과 市場價格接近法, 混性的 接近法을 적용한 價値 評價가 이루어져 평가목적 및 상황별 적합한 평가방법의 모색과 아울러 그것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일련의 합의내지 운동이 뒤따라야 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김애실, "가사노동의 경제적가치",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겨울, 1985, pp.25~43.
- 2) 김선희, "도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변화와 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1호, 1989, pp. 5~6.
- 3) KBS, 「국민생활시간」, 1982, 1984, 1986, 1988.
- 4) 노동부, 「직종별임금실태조사」, 1988.
- 5) 문숙재, 최옥희, 「가사노동」, 신광출판사, 1986, p.177.
- 6) 문숙재, 「가정생산」, 신광출판사, 1988, p.128.
- 7) 정영금, "가정노동의 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8) 최명숙,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선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9) 伊藤セツ・天野寛子・森ます美・大竹美登利, 「生活時間」, 光生館, 1986, pp.302~307.
- 10) M.A.Ferber and C.A.Greene, "Housework vs. Market Work: Some Evidence How the Decision is Made", The Review Income and Wealth, June, 1983, pp.147~159.
- 11) William Nordhous and James Tobin, "Is Growth Obsolete?", Economic Growth, NBER", Fifeth Aniversary Colloquiom V, NBER, 1972.
- 12) M.Weinrobe, "Household Production: An Empirical Improvements of the Record",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March, 1974, pp.89~102.
- 13) H.J.Adler and O.Hawrylyshyn, "Estimates of The Value of Housework Canada, 1961 and 1971",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pp.333~355.
- 14) Martin Murphy, "Comparative Estimates of The Value of Household Work in the United States for 1976",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8~14, 1982, p.30.
- 15) R.Schettkat, "The Size of Household Production: Methodological Problem and Estimates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the period 1964 To 1980",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1~3, 1985, p.312.
- 16) K.Walker and W.Gauger, "The and Its Dollor Value in Household Work" Family Economic Review, Fall, 1973, pp.8~13.
- 17) J.W.Kendrick, "Expending Imputed Values in the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Dec., 1979, pp.349~369.
- 18) F.F.Hall and M.P.Schroeder, "Time Spent on Household Task", J.Home Economics, 62~11, 1970, pp.23~29.
- 19) M.Murphy, "The Value of Nonmarket Household Production: Opportunity Cost vs. Market Cost Estimates", Review of Income of Wealth, 24~34, 1978, pp. 243~255.
- 20) O.Hawrylyshyn, "The Value of Household Services: A Survey of Empirical Estimate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June, 1976, pp.101~131.